

(질문 주셨는데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.^^

열심히 응용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

앞으로도 계속 그 모습 기대할게요.^^ ~~)

그럼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“p일 경우에만 q이다.”는 “~p이면 ~q”이므로 그 대우명제[후건부정법]인 “q이면 p”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(맞습니다.^^)

학생분의 질문은 그러하다면 “~p→~q”와 “q→p”의 진리값도 일치해야 하는데 진리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신 듯 싶습니다.^^

제 답변부터 드리자면 이 둘의 진리값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야 후건부정법이 성립하는 것이겠지요.

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먼저 I. “p와 q”의 조합은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. 그 후 II. “~p→~q”의 진리값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II. “q→p”의 진리값을 살펴본 후 II와 III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겠습니다.

I		II			II의 진리값	III			III의 진리값
p	q	~p	→	~q		q	→	p	
T	T	F	→	F	[T]	T	→	T	[T]
T	F	F	→	T	[T]	F	→	T	[T]
F	T	T	→	F	[F]	T	→	F	[F]
F	F	T	→	T	[T]	F	→	F	[T]

위의 경우로 볼 때, II의 진리값과 III의 진리값은 일치합니다. ^^

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조건명제의 진리값 중 거짓인 경우는 단 하나! **전건이 참일 때, 후건이 거짓인 경우**뿐입니다. 즉 “T→F”는 [F]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입니다. 논리학에서 약속한 정리가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.^^

(p.s. 학생 분이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수업시간에 구두로 잘못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. 아울러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.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)